2026-11-16

iM FX Brief

다시 강화된 달러와 미 국채 금리간 상관관계

FX Brief

[경제] 박상현 2122-9196 shpark@imfnsec.com

주간 동향: 미 연준 추가 긴축우려 강화로 달러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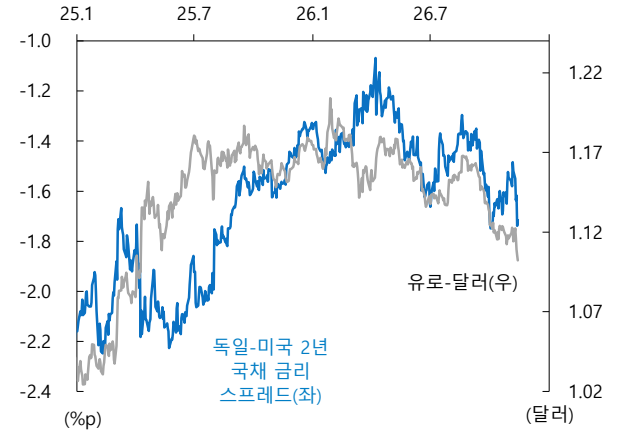
-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발표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가 강화되면서 달러화는 전주대비 1% 이상 상승함.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로 미 연준의 빅스텝(50bp 인상) 우려가 제기되면서 10년 국채 금리가 다시 5%대엔 재진입한 것이 달러 강세 압력을 높임
- 유로화는 양호한 3분기 성장률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조 강화 우려로 전주대비 1% 넘는 약세를 보임
- 달러-엔 환율이 재차 160엔 수준에 육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추가 시장 개입 우려 경계감으로 159엔대에서 눈치보기 장세를 보임
- 위안화도 약보합세를 보임. 젠슨황 CEO 스캔들에 따른 미중 갈등 확산 우려 등이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함
- 호주 달러도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함. 달러 강세,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이 호주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함
- 주요국 통화 중 원화 가치만 유독 강세를 보임. 블루웨이브 우려 등으로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달러-원 환율은 네고 물량 확대 등의 영향과 11월 1~10일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임

	11월 13일 종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103.4	1.09	5.18
유로-달러	1.102	-1.08	-6.16
달러-엔	159.7	0.78	1.91
역외 달러-위안	6.67	0.03	-4.31
호주달러-달러	0.68	-1.38	1.48
달러-원	1,337.6	-1.86	-7.41

금주: 미국 10년 국채금리 추가 상승 여부 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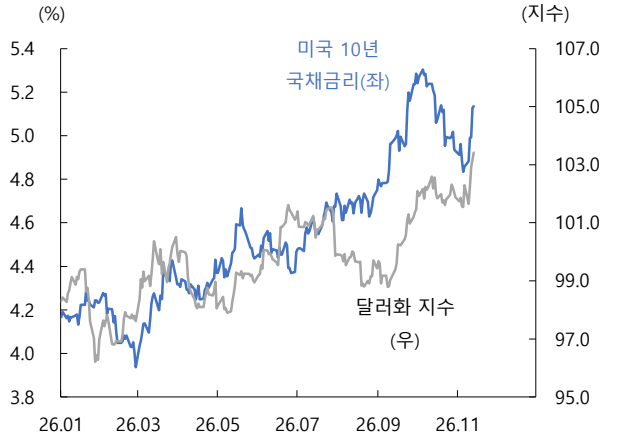
- 미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분위기로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다시 5.1%대로 재반등하면서 국채금리와 달러화간 상관관계가 강화됨. 따라서, 미국 국채금리 추가 상승 여부가 달러화 추가 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. 트럼프의 대이란 정책이 협상과 전쟁 재개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유가 변동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금주 유가 추이가 미국 국채금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. 달러-엔 환율이 160엔 수준에 재차 근접하면서 추가 외환시장 개입 경계감이 커짐. 달러-엔 환율 흐름도 금주 달러화 흐름에 영향을 미칠 변수임
- 금주 달러-원 환율 밴드는 1,320~1,360원을 예상함. 대외적으로 달러 강세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 양호한 달러 수급 여건으로 달러-원 환율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 어려울 것임

그림1.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유로-미국간 금리스프레드가 다시 확대됨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그림2.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간 동조화 현상이 다시 강화됨



자료: Bloomberg, CEIC, iM증권 리서치본부

Compliance notice

・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・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